

【 해외금융 뉴스: 일본 】

증권세제 우대책, 2012년까지 연장 확정

- 최근 일본정부는 대표적인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상장주식의 배당금과 양도 이익 세율을 10%로 인하한 증권세제 우대책의 시행 기한을 논란 끝에 201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함.
 -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과 지미 쇼자부로 금융상은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장주식의 배당금 및 양도이익에 대한 세율을 기존의 20%에서 10%로 경감하는 내용의 증권세제 우대책을 2013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함.
 - 증권세제 우대책은 초저금리 기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예금에 집중되어 있는 가계성 금융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03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주식거래량 증가에 어느정도 효과를 거뒀던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연초부터 연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

- 증권세제 우대책 연장 여부를 두고 주식시장 활성화 지속을 위해 3년 연장을 주장한 금융청과 사회격차 해소, 재정확보 등의 목적으로 연장에 반대한 민주당 및 재무부가 팽팽히 맞선 끝에 결국 2년 연장으로 결론 내려짐.
 - 금융청은 최근에서야 일본 주가지수가 2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만큼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증권세제 우대책을 201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옴.
 - 반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증권세제 우대책을 사회격차 해소에 반하는 대표적인 반서민 제도라고 비판하고, 재무부 역시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과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기간연장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최종 합의까지 난항을 겪음.
 - 한편, 일본정부는 증권세제 우대책 외에도 경제성장과 고용확대 촉진을 위해 40.7%에 달하는 현행 법인세(실효세율)를 5%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1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FujiSankei Business I, 12/15)